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 아기 예수의 탄생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삼가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 2008년 가을학기 성서학당 오전 강좌와 저녁 강좌 모두 이번 주 목요일에 종강합니다.

: 12월 12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속장들은 속회 개근자들을 파악하여 사무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1시까지 사무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2시에 친교실에서 2008년도 당회로 모입니다.

멀리 해외에서 지내는 지인들에게 성탄절 카드를 써서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자비하신 하나님, 일 년의 긴 여정을 보내고 마지막 달을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세주의 오심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대림절기, 그 믿음의 여정에도 밝은 빛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들 안에 있는 후회와 아쉬움, 욕심과 걱정을 비우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구유 깨끗이 비우고 온전한 참 생명, 진리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갑자기 찾아온 추위만큼이나 냉랭해진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따뜻한 아랫목 같은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십시오.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녹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처럼 뜨겁게 하여주십시오.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윤석철 장혜숙 박옥식 장영숙 한완식 임정자 한상의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중수 이소정 김지윤 박규석
 박경선 배근수 김금순 오진훈 노순옥 최종원 김소복 전영웅 임고운
 오자영 김지호 장성호 박지인 손성현곽상준 최경미 왕성환 강순배
 김정민 광경선 김주호 허신열 조관행 홍선희 황지현 권미숙 조항범
 오현정

월정헌금:

김명순 김중철 고영애 김현영 정원석 박준희 이기분 서정순 왕수명
 윤주원 최윤선 윤성중 김윤정 이동천 이병철 김현진 장재영 김재영
 전영규 김경수 최철수 광권희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윤여민 임보람
 박범희 박미영 이은자 류건형 이주은 황의일 문홍일 이경남

감사헌금:

김준우 방문성 박해경 송희원 송우석 송채원 김준호 곽해자 이유일
 김미희 배근수 김금순 단 비 왕성환 강순배 노용래 노미향 오정숙
 김순복 문홍일 이미혜 무명3

생일감사 : 김중수

녹색꿈헌금 : 윤석철 김명순 오재환 홍순구 안홍숙
 (계 : 7,381,000원)

	장혜숙	장혜숙	장혜숙	연합속회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임정자	임정자	정복순	
	문영혜	박경선	김진경	
	안정숙	박애순	안정숙	
	박홍재	광권희	송의섭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이소정	김금순	강순배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송양진	유경순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배삼순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불가능한 꿈

이를 수 없는 꿈을 꾸고
 싸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참을 수 없는 슬픔을 참아가며
 용감한 사람들도 가지 못한 곳으로 달려가고
 바로잡을 수 없는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며
 저 먼 곳의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사랑하고
 양팔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무리 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 별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순례라오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져야 할 권리를 위해 의심이나 중단 없이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천명
 이 영광스런 싸움에서 내가 끝까지 진실할 수 있다면
 언젠가 평화롭게 쉴 수 있겠지
 경멸과 고통으로 상처 가득한 한 인간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내서
 저 닿을 수 없는 별에 닿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지

- 뮤지컬 『라 만차의 돈키호테』 중에서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온몸을 던져 우리들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들 사이, 우리와 자연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허무신 장벽을 애써 다시 쌓으려 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반성합니다. 우리들 손에 들고 있던 이기심, 교만, 우월 의식 등을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섬김과 겸손과 희생으로 평화의 길을 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2월 월례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찬양인도 / 김재흥 목사	기도 / 김재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준우 목사	장성호 선생 방문성 장로	인도자 오자영 집사

12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훈동 정원석 박혜경 유경순 김현영
	헌금위원	윤석철 문영혜(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성탄 선물로 받은 양초의 성사(聖事)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록소록 ... 온 누리가 두툼한 흰빛 외투를 입고 있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눈의 망망대해, 간간이 눈길에 미치는 시커먼 형상은 전나무들 - 열대 지방 출신인 나에게서는 물론 엄청난 장관이 아닐 수 없다.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이면 내가 고향을 떠나 첫 번 맞는 성탄절이 될 것이었다. 우울과 향수가 뒤섞임을 나는 느꼈다. 동시에 기대와 내적 명랑성이 갈마드는 기분도 있었다. 이런 느낌이 영하 22도라는 혹한의 겨울 날씨로 더욱 심화되는 것이었다. 곳은 남독일 소도시 베르히테스가텐. 멋들어진 바이에른 지방의 경치를 지닌 고장의 하나다.

도심지에 자리한 조그만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은 잔뜩 찌푸린 잿빛 하늘 아래서 하얀 눈더미 속에 파묻혀 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하오 내내 나는 산보용 단장을 하나 쥐고 질척거리는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곳 관습에 따라 집집마다 창틀에 등불들이 타고 있었다 - 예수 아기가 오신다는, 예수 아기는 집집이 한 번씩만 들르시므로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표징으로서.

하오 늦게는 많은 고백을 들었다. 이 무렵 이 부근 높은 산에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온 프랑스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다. 분명히 그들은 모두가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 신부들은 우리들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할 겨를이 거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성탄절 준비를 도와주는 동안 우리들 자신은 성탄절을 제대로 경축할 시간을 좀처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축제를 함당하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사람이 아니던가. 모두들 저녁 여섯 시 미사에 모여 구유 속의 예수 아기를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를 상기하는 동안 우리는 고백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다른 역사들을 듣고 있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역사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역사를, 존귀하시기로 말하면 헤아릴 길 없이 크시면서도, 그런 영광 속에서도 작고 보잘 것 없이 되신 하느님 현존의 역사를!

밤이 이슬하여 열 한 시쯤 요란한 축포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사방

에서 불빛들이 번쩍이며 희다 못해 파르스름한 눈 위로 쏟아졌다. ... 자정 미사는 참으로 멋졌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가죽 바지와 두툼한 긴양말과 더욱 묵직한 신발들로 차려 입은 농부들이 전형적인 바이에른 지방 노래 가락들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들레헴 목동들과 같은 기분이 되는 것이었다. 정말로 그들이 그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다 끝나자 깊은 고요가 온 누리를 덮었다. 골짜골짜에서 작은 등불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성당을 다녀간 신자들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었다. 하느님을 영접한,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 드린 그들이었다.

새벽 한 시 반쯤 수도원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두터운 잿빛 두루마기를 입은 한 할머니가 손에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가지고 온 조그만 꾸러미 하나를 내밀면서 할머니가 말했다. “자정 미사 때 나오셨던 그 외국 신부님께 드리려고요.” 내가 불리어 갔다. 할머니는 예쁘게 싸 꾸러미를 나에게 건네어 주면서 몇 마디 덧붙인다. “신부님은 오늘 고향과 고향집 식구들을 멀리 떠나 계시지요. 이걸 신부님께 드리는 조그만 선물이랍니다. 신부님에게도 오늘은 성탄절이라야 하나까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쥐어 주고 나서 눈 내리는 축복받은 밤 속으로 사라졌다.

고향의 성탄절 모습들이 갖가지로 머리를 스쳐 가는 동안 - 물론 눈이 없는 것만 빼고는 여기나 거기나 매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 나는 혼자 방에 앉아서 그 조그만 꾸러미를 풀었다. 꾸러미 속에서 나온 것은 세로로 내리 무늬를 새긴 큼직한 진홍색 양초 한 자루와 튼튼한 쇠불이 촛대 하나였다. 쓸쓸한 밤 속에서 한 불빛이 당겨졌다. 기다란 그림자가 맞은 편 벽에서 춤을 추었다. 문득 쓸쓸한 느낌이 가져졌다. 고향을 멀리 두고서, 성탄절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만인이 형제애의 잔치를 거행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누군가가 그리스도 아기의 메시지를 이해한 것이다. 예수님이 낫신 이로 이웃을, 이방인으로 형제를 삼으셨음을. 그러구려 여러 해가 지난 오늘도 책꽂이의 한 널판 위에서 그 때 그 성탄절 양초가 성탄 성야를 밝힌다. 그럴 것이다. 타면서 그 양초는 백설과 고독 속의 한 행복한 밤을 상기시킨다. 나에게서는 다른 어느 양초라도, 아무리 예술적으로 잘 만든 양초라 하더라도 나의 성탄 양초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 나의 이 양초는 한 성탄 성사다.